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중국
	대학명	북경이공대학교
파견기간	2024년 2월 ~ 2025년 1월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중국어	

1. 출국 전 준비사항

1-1. 유학생 보험

북경이공대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가입하라고 하는 유학생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한국에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생각보다 병원을 찾는 것을 보며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2. 비자

중국 유학생 비자에는 X1, X2 비자가 있습니다. 반 학기 파견자의 경우에는 180일 유효 비자인 X2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1년 파견 학생이었기 때문에 X1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규격에 맞는 비자 사진을 찍은 후 온라인으로 미리 비자발급센터 방문 예약을 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혹 비자 사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진 찍을 때 중국 비자 사진이라고 꼭 말씀하세요. 온라인으로 서류만 잘 제출하면 비자센터에서는 수월하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센터에는 늘 사람이 많으니 오픈전 혹은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자센터 오픈 사십 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이미 줄이 있었습니다. 비자는 신청 후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이내는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3. VPN

중국은 대부분의 앱이 차단되기 때문에 도착하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sim 혹은 VPN을 결제해 가야 하는데 저는 알레그로 VPN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옷이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은 많이 안 챙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한 물건들을 거의 사 갔는데 생각보다 쓰지 않는 물건도 많았고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중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에도 도착 당일에 학교에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날 필요한 물건들을 위주로 가져가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필요한 물건은 샤워기와 세면대 필터, 기타 기초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수도물은 녹물이나 흙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갈아야 합니다. 많이 들고 오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샤워기 필터도 타오바오 같은 앱으로 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 갔는데 중국에서 그 제품과 맞는 필터 리필이 없어서 결국 새로 샀습니다. 중국에서 사면 저렴하고 자주 바꿀 수 있으니 꼭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제품의 경우 한국 제품을 중국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팩이나 스킨, 로션 등 넉넉히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저는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 교환학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표준어인 보통화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베이징 사람들과 말할 때 일화가 심해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니 금방 귀에 익고 처음보다는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중국인들 대부분 생각보다 발음을 또박또박 하지 않고 속도도 빠르므로 중국에 오기 전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며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식당에 차가운 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마시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주는 곳이 많으니 차가운 물이 있는지 여쭙보는 표현을 익히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국인들은 변기에 앉는 것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중국 화장실은 좌식 변기인 곳이 많고 큰 상가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휴대용 티슈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처음에는 좌식 변기의 불편함과 휴대용 티슈를 들고 다녀야 하는 것에 번거로움을 느꼈지만 조금 지내다 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한국과 비교해 저렴합니다. 특히 과일이나 학식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학식은 마음껏 먹어도 한화 사오천 원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과일도 한국에서는 비싼 열대과일들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택시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량샹 캠퍼스는 베이징의 중심지와 떨어져 있어 외출할 때 친구들과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있는 제품(아디다스, 나이키 등)이나 개인 카페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중국은 크고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언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인 보통화와 가장 비슷한 말을 구사하는 베이징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다양한 역사 유적지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후 학교에서 픽업 나오신 분을 만나 대기 후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중관춘에서 지낸다면 서우두 공항을 량샹캠퍼스에서 지낸다면 다싱 공항을 추천합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화상 면접을 보고 며칠 지난 후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았고 이 시험과 HSK 급수, 중국어 공부 기간 등으로 반을 나눠줍니다. 이후 중국에 도착하여 선생님과 레벨 테스트를 보고 최종 반 편성을 해주십니다. 참고로 높은 반에서 낮은 반을 내려 갈 때에는 그냥 내려갈 수 있지만 낮은 반에서 높은 반을 올라가고 싶다면 따로 시험을 보고 올라가거나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시험을 본 반에 꼭 남고 싶다면 레벨테스트 시간에 선생님께 어필해보세요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저는 일 년 동안 세 곳의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중관춘 캠퍼스에서 3인 1실에 공용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했습니다. 중관춘은 위치는 좋으나 기숙사가 많이 낡았고 12시 이후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샤워 시간이 겹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4월에 캠퍼스를 량샹으로 옮긴 후 至善园이라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7인 1실이었지만 2명씩 두 방 3명이 한방을 사용하여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3인 1실을 사용하였고 삼인실은 방안에 화장실이 있고 7인실 안에는 세탁기가 있어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학식당인 남식당 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 주말에 밥 먹기도 좋았습니다. 여름방학부터는 유학생기숙사에 살았는데 2인 1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조리를 할 수 있다 보니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고 외국인 기숙사이다 보니 음악 소리, 파티 소리 등이 자주 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없는 방에 걸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하는 건물이 유학생기숙사 지하라 가깝다는 것과 마트 옆 식당이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처음 오자마자 만리장성 투어를 해주고 학기에 한 번씩 국제문화제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대학생들이 여는 행사가 있어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중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은 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만약 중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주목적인 분이라면 살짝 비추천합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캠퍼스가 크고 호수도 있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학교 호수에는 알파카와 오리, 흑조 등이 살고 있으니 한 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학교 학식이 정말 저렴하고 맛있으니 자주 이용해보세요. 학식에서 파는 카오야도 밖에서 파는 카오야와 비교해 손색이 없습니다. 학교 안 마트에서 파는 음식들도 꽤 퀄리티가 좋으니 도전해보세요. 저는 길거리 음식 중 치즈옥수수카오링미엔과 유학생센터 옆에 쇼좌빙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량샹캠퍼스에 있다 보면 티엔지에와 시대 광장을 가장 많이 가게 됩니다. 걸어가기엔 좀 거리가 있으니 자전거나 뽀치를 타고 가보세요. 중국에서는 자전거를 탈 일이 생각보다 많아 정기권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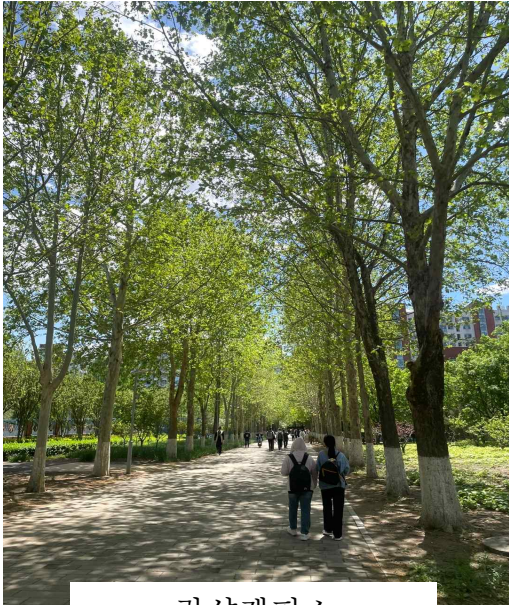
내몽고,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장자제, 텐진, 운남, 시안, 친황다오를 여행했습니다. 내몽고 같은 경우 한국 유학생 위챗에 패키지로 올라오는 상품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번 다녀오세요. 반 학기 파견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부지런히 여행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휴일에는 여행경비가 조금 비싸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학기 중에 시간을 많이 빼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분들은 평일에 텐진 여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베이징과 가까워서 수업 끝나고 가기도 부담이 없고 아기자기한 카페와 상점도 많습니다. 저는 텐진을 보고 작은 상하이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진 여행지와 별개로 중국인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작은 중국어에도 잘한다고 칭찬해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당히 물어보세요. 다들 도와주실 겁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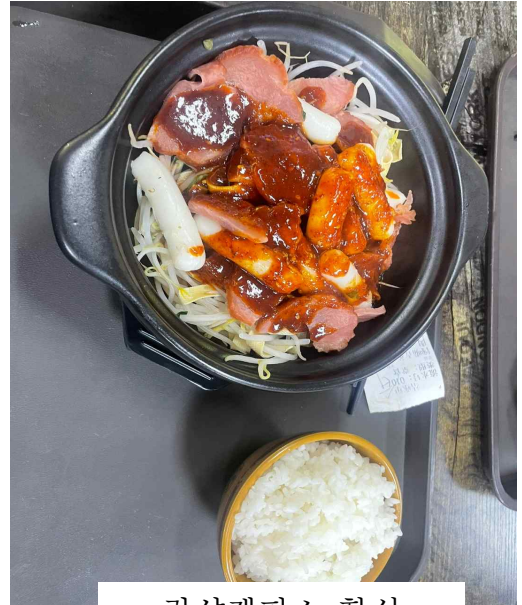
교환학생을 고민한다면 꼭 한 번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가서 후회하는 것과 안 가보고 후회를 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는 것도 대학생인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 다양한 것을 즐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도 편견도 없는 상태로 갔는데 일 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느껴 중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좋은 기억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교환학생을 가라고 하면 갈 만큼 이번 교환학생의 기억이 좋아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꼭 중국이 아니어도 다들 교환학생에 가서 다양한 것을 느껴보세요. 추천합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랑샹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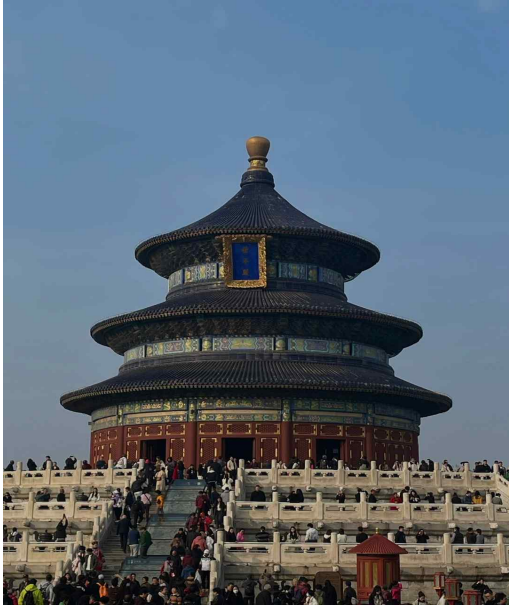
랑샹캠퍼스 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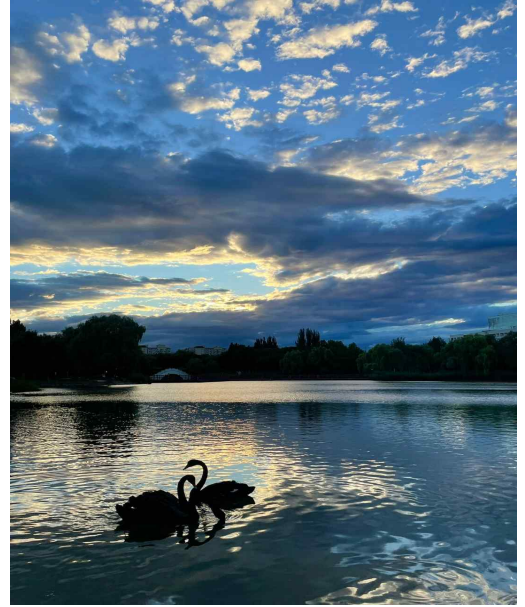
내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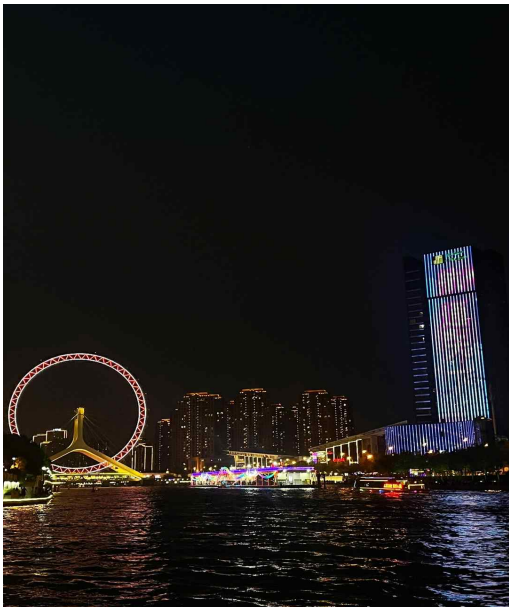
상하이



첨단공원



량샹캬 호수



텐진 아이



량샹캬 음악회